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의 차별적 매개효과*

Received: April 15, 2022
Revised: May 23, 2022
Accepted: May 26, 2022

구소진¹, 박은영²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¹,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²

교신저자: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38430)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E-MAIL:
eyp0202@cu.ac.kr

Effects of Parentification on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Ability: The Differential Mediation Effects of Self-Discrepancy and Cognitive Empathy

So-Jin Ku¹, Eun-Young Park²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Master's degree¹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²

© Copyright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 이 논문은 2019년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며, 한국임상심리학회 주최
2019년 가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되었음.

ABSTRACT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의 하위요인을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으로 구분하여 각 하위요인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44명의 자료를 SPSS 22.0과 AMOS 22.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화 경험 두 하위요인은 각 하위요인 모두 가족형태와 출생순위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의 경우, 부모화-불공평은 대인관계능력, 인지적 공감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자기불일치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화-돌봄은 대인관계능력, 인지적 공감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불일치와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최종모형 매개분석 결과, 부모화 경험 두 하위요인이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을 매개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화 경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 그리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부모화 경험, 대인관계능력,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

인간은 삶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self)를 형성 및 발달시키고, 친밀한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격을 형성시킨다(Sullivan, 1953). 특히 최초의 사회적 관계인 부모-자녀 간의 관계는 자녀의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이후의 심리적 상태 및 대인관계의 질 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심리학자들은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Parke et al., 2004), 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개인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다.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된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로 부모화(parentification)가 있다. Boszormenyi-Nagy와 Krasner(2013)에 따르면 부모화는 자녀가 어린 시기부터 부모나 가족을 보살피는 역할을 맡는 부모-자녀 간 역할 전이로 정의된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는 문화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한국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인 '효(孝)'를 중요하게 여겨 자녀에게 가족 간의 일체감이나 의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김동영 등, 2015). 이에 한국사회의 자녀들은 부모화를 보다 빈번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부모화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부모화는 양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역할에 따른 구분(물리적, 정서적, 불공평)으로, 물리적 부모화는 가사 일, 경제적 책임을 맡는 등의 실질적 행동을 통해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 정서적 부모화는 가족의 정서적 지지자가 되거나 관계를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정서적 조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불공평은 가족구성원 간의 돌봄 및 이해의 역할이 공평한가를 의미한다. 두 번째 기준은 자녀의 돌봄 및 책임의 정도, 지속성에 따른 구분(파괴적, 적응적, 비

부모화)으로, 파괴적 부모화는 자녀가 가족에게 과도한 돌봄을 일방적,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적응적 부모화는 자녀가 돌봄을 제공하긴 하지만 기간이 일시적이고 가족 간 공평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녀의 조력이 인정받는 경우, 그리고 비부모화는 부모화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부모화 경험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왔다. 예컨대, 부모화 경험을 한 자녀들은 우울, 자기비난, 낮은 자아존중감, 불필요한 걱정, 신체화를 경험하는 등 심리적 취약성을 지니게 되며(Byng-Hall, 2002), 거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타인을 과하게 배려하거나 정서표현에 양가감정을 느끼는 등(문비, 2006), 대인관계능력을 갖추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Boszormenyi-Nagy 등(2013)은 부모와 자녀 간의 윤리적 맥락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만약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과도하게 뒤바뀌게 된다면 이는 역기능적인 관계로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들은 부모화 경험 자체를 병리적인 현상으로만 볼 수 없으며 기능적인 측면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석미정, 박승민, 2019). 즉 타인을 배려하고 보살피려는 특징 자체는 적응적인 행동이며(이경화, 장유진, 2019; Bowlby, 1973),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의 역할 전이는 가족 내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부모-자녀 관계 발달의 경험이 되기도 한다(Hooper, 2007).

이처럼 부모화 경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 뿐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 또한 존재하므로 부모화 경험 자체를 병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신말숙, 심혜원, 2017). 최근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제안하는데, 여러 영역 중 특히 대

인관계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다(Hooper et al., 2008; McMahon & Luthar, 2007). 예컨대, 가족을 돌보는 행위가 과도하지 않고 인정받는 분위기 속에서 겪는 부모화 경험은 자녀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고 타인을 돌보고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게 하며, 이는 자기효능감과 협동적 능력, 대인관계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Hooper et al., 2012; Kupermic & Jurkovic, 2009, Tompkins, 2007).

이상에서 부모화 경험이 부정적으로든 긍정적으로든 개인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부모화 경험의 양상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대인관계능력은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으로(박선하, 유형근, 2018), 인간의 행동이 대부분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대인관계의 질이 개인의 삶의 만족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권석만, 2004)는 측면에서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Jurkovic 등(2001)은 자녀가 가족 내에서 지각하는 공평성의 정도에 따라 부모화 양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Jurkovic 등(2005)은 부모화의 역할에 따른 구분(물리적, 정서적, 불공평) 중 '불공평'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부모화 유형을 구분하는 두 기준(역할에 따른 구분, 돌봄의 정도 및 지속성에 따른 구분)을 통합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부모화 유형 중에서 돌봄 분배의 불공평 수준이 높은 경우를 '부모화-불공평'으로, 그리고 불공평의 수준이 낮은 물리적, 정서적 부모화를 '부모화-돌봄'으로 묶어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파괴적 부모화는 '부모화-불공평'

수준이 높은 유형, 적응적 부모화는 '부모화-불공평'이 비교적 낮은 유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종합하면, 과거의 연구들은 부모화 경험을 병리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또한 다수 보고되고 있다(Gladstone et al., 2011; Kupermic et al., 2013).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부모화 경험의 양상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간과하고 경험의 유/무로만 접근하였으며, 입체적인 접근 방식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Jurkovic 등(2005)이 제안한 기준을 바탕으로, 부모화 경험을 두 하위요인(불공평, 돌봄)으로 구분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자녀가 일방적으로 가족을 돌본다면 불공평감을 느끼게 되고(Burton, 2007), 이는 파괴적인 양상의 부모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자녀는 불공평함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유지라는 안정감을 얻기 위해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억압한 채 부모의 기분을 보살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이경화, 장유진, 2019). 그 과정에서 자율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여 거짓 자기를 발달시키게 되고(Castro et al., 2004), 이로 인해 자기개념 간 불일치가 유발될 수 있다.

자기개념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지각 및 평가를 반영하는 인지적 관념으로(권석만, 1996), Higgins (1987)의 자기불일치이론에 따르면 자기(self)는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로 구분되며, 자기개념이 통합되지 않은 경우를 자기불일치라고 정의한다. 이처럼 자기개념은 다차원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데, 자기(self)에 내재된 자기표상(self-representation)들의 괴리가 커질수록 부정

적 정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김지은, 박준호, 2018), 이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한다(McCann & Higgins, 2015). 예컨대, 자기불일치 수준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회피성, 예민성, 수동성, 무력감 및 공격성 등의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고, 개방성이나 의사소통 능력 및 만족감과 같은 대인관계능력은 낮다는 결과들이 이를 지지한다(김영수, 신희천, 2012; 정소라, 장석진, 2017). 따라서 자기불일치는 대인관계 능력 형성의 어려움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자녀가 가족구성원을 보살피는 역할이 과도하지 않다면 타인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행동 자체는 적응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Bowlby, 1973). 부모를 지지하고 돕는 경험은 본질적으로 친사회적인 경험으로, 이 과정에서 자녀들은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 등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강선모, 2013; 조은영, 2004). 특히 부모화된 자녀들은 타인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에 우수한 민감도를 지닐 수 있으며, 이는 타인의 의도나 바람 등의 마음상태를 추론하는 공감의 인지적 측면이 잘 발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정신 상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으로(강준, 2013), 상대방의 관점을 취하고 행동을 예측하여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조수아, 장진이, 2019). 이러한 능력이 대인관계능력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들에 의해 입증되어 왔다(Chow et al., 2013; Rorgers, 2009). 또한 논리적 순서상 공감의 두 측면(인지적, 정서적) 중 인지적 요소가 선행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고(박성희, 1996), 정서적 공감이 높은 집단 비해 인지적 공감

이 높은 집단이 대인관계 내에서 문제를 느끼는 정도가 더 낮다는 연구 결과 또한 보고된바(고문정, 2006), 공감의 인지적 측면은 대인관계능력 향상에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이 연구는 부모화를 경험한 개인이 그 경험을 불공평하다고 지각하는가를 고려하여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으로 하위요인을 구분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부모화-불공평' 수준이 높은 파괴적 부모화를 경험한 경우는 자기불일치가 높아져 대인관계능력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적응적인 부모화를 경험한 경우는 인지적 공감이 높아져 대인관계능력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경로와 달리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부모화 경험의 세 하위요인(물리적, 정서적, 불공평)에 따라 자기불일치와의 관계가 상이하게 보고된 바 있으며(공인원, 홍혜영, 2015), Jorkovic 등(2001)은 부모화된 자녀가 겪는 어려움 중 하나로 어린 시기부터 부모에게 자신의 욕구나 감정에 대한 수용을 받아본 경험이 부족함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즉 부모화 경험과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 간의 관계가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부모화 경험의 유/무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경험의 양상에 따른 차이가 구분되지 않아 초래된 현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부모화 경험 양상에 따라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 간의 관계가 상이할 수 있고 그 관계가 대인관계능력의 발달에도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는 추론일 뿐 부모화 경험의 양상을 구분하여 각각을 고려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연구모형의 경로를 포함하여 모든 변인 간 경로를 유의한 것으로 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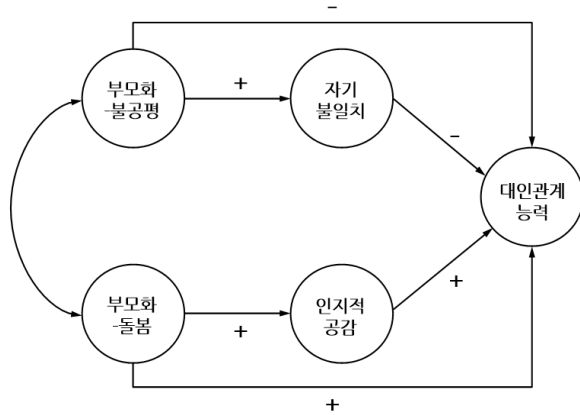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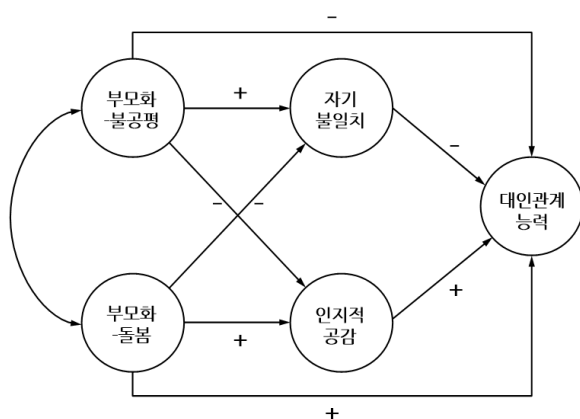


그림 2. 경쟁모형

한 경쟁모형을 함께 설정하여 모형적합도를 비교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은 그림 1, 2에 제시하였으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부모화-불공평, 자기불일치, 대인관계능력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연구 문제 2. 부모화-돌봄, 자기불일치, 대인관계능력은 어떤 관계를 보이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IRB승인(CUIRB-2018-0054)을 받은 후, 대구 및 경북 소재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을 표집하였으며, 연구내용 및 비밀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설문지에 기재하고 설문에 동의할 경우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총 378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한 응답 34명을 제외한 344명의 설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도구

부모화 경험

Jurkovic 등(1999)이 개발하고 조은영(2004)이 번안한 척도(Filial Responsibility Scale Adult, FRS-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와 현재를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344)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130	37.8
	여자	214	62.2
가족형태	양부모가족	287	83.4
	한부모가족	39	11.3
	확대가족	10	2.9
	조부모가족	3	0.9
	기타	5	1.5
출생순위	외동	30	8.7
	첫째	160	46.5
	중간	21	6.1
	막내	133	38.7

구분하여,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그리고 불공평 각 10문항씩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의 경우 과거 부모화 경험을 묻는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에서 부모화의 역할에 따른 구분(물리적, 정서적, 불공평) 중 '불공평'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부모화-불공평'을 개별 요인으로 접근할 수 있음이 보고됨에 따라(강선모, 2013; Jurkovic et al., 2001; Kupermic et al., 2009),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여기서 '부모화-불공평'은 가족구성원 간 돌봄 분배의 불공평 수준이 높은 경우(문항 예시: 식구들은 내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부모화-돌봄'은 가족구성원 간 상호호혜적인 돌봄을 주고받는 경우(문항 예시: 나는 가족을 위해 돈을 번 적이 있다, 내 가족들은 나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았다)를 의미한다. Jurkovic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4~.86으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62~.85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능력

Schlein 등(1971)이 개발한 척도를 문선모(1980)가 번안하고 박영호(2006)가 타당화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23문항으로 만족감, 감정이해, 의사소통, 개방성 등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Likert 척도 상에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영호(2006)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8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3으로 나타났다.

자기불일치

Higgins 등(1986)이 제작한 자기질문지(Self-Questionnaire)를 서수균(1996)이 보완하고 새롭게 구성한 자기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2문항의 형용사 쌍을 9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질문지를 이용하여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에 대해 평가하였다. 점수는 22문항 각각의 문항별로 대응되는 차이 절대값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였으며, 차이 값이 클수록 실제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 간 불일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서수균(1996)의 연구에서 각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실제적 자기 .85, 의무적 자기 .9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실제적 자기 .91, 의무적 자기 .92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

Davis(1987)의 이론에 근거하여, Reiners 등(2011)이 개발한 척도(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QCAE)를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및 타당화한 강준(2013)의 한국판 인지-정서 공감척도(K-QCAE)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QCAE의 총 31문항 중, 인지적 공감을 측정하는 19문항을 사용하였다. 인지적 공감의 하위요인은 조망 수용(타인의 관점 및 입장에 대한 이해 능력)과 온라인 시뮬레이션(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 상대방의 입장에 처했다고 상상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있다. 강준(2013)의 연구에서 전체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78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4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2.0과 AMOS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고 주요변인과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평균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및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델링에 적합한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변인의 기술통계량 및 변인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문항꾸러미 (item parcels)를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을 구성하였고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채택된 최종 모형의 각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결 과

기술 통계치 및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인관계 능력은 부모화-불공평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r(344)=-.51, p<.01$, 부모화-돌봄과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r(344)=.20, p<.01$. 인지적 공감 역시 부모화-불공평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낸 반면 $r(344)=-.39, p<.01$, 부모화-돌봄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r(344)=.30, p<.01$. 또한 자기불일치의

경우, 부모화-불공평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r(344)=.40, p<.01$, 부모화-돌봄과는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r(344)=-.09, ns$. 마지막으로, 대인관계능력과 인지적 공감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r(344)=.70, p<.01$, 대인관계능력과 자기불일치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r(344)=-.57, p<.01$. 한편, 왜도의 첨도 값의 경우 Kline(2018) 제시한 기준인 3과 10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들의 차이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Jurkovic 등(2005)이 제안한 기준을 적용하여, 부모화 경험을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에 부모화 경험의 두 하위요인(부모화-돌봄, 부모화-불공평)에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Scheffe*의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 모두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가족 형태와 출생순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부모화-불공평의 경우 가족형태가 한 부모가족일 때 $F(4, 339)=2.61, p<.05$, 출생순위는 첫째일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340)=2.87, p<.05$. 이와 다르게, 부모화-돌봄은 가족형태가 확대가족일 때 $F(4, 339)=2.73, p<.05$, 그리고 출생순위는 첫째일 경우 경험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3, 340)=11.69, p<.001$.

표 2. 주요변인 간 상관

(N=344)

변인	1	2	2-1	2-2	3	4	5
1. 부모화-불공평	1						
2. 부모화-돌봄	.30**	1					
2-1. 물리적 부모화	.11*	.85**	1				
2-2. 정서적 부모화	.40**	.89**	.50**	1			
3. 대인관계능력	-.51**	.20**	.26**	.10	1		
4. 인지적 공감	-.39**	.30**	.29**	.23**	.70**	1	
5. 자기불일치	.40**	-.09	-.18**	0.1	-.57**	-.51**	1
<i>M</i>	2.04	2.22	2.21	2.23	2.87	2.90	1.87
<i>SD</i>	.57	.45	.48	.55	.46	.47	.99
왜도	.81	.29	-.01	.42	-.43	-.70	1.40
첨도	.59	-.28	-.38	-.19	1.19	1.80	3.20

* $p < .05$. ** $p < .01$. *** $p < .001$.

측정모형 검증

잠재변인과 관련 변인들 간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형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chi^2=164.85$, $df=67$, $CFI=.967$, $TLI=.955$ 로 나타나 .90보다 높으므로 양호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SRMR은 .046로 나타나 양호 수준이라고 평가되는 .05이하의 수준을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홍세희, 2000).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의 사이의 관계 및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변인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63 ~.92로 수용 가능했으며, 임계비는 모두 기준 수치인 1.96보다 컸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또한 모든 변인의 AVE값이 Hair 등(1998)이 제시한 .5를 상회하였으며, 개

념신뢰도 값이 .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렴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각 변인의 상관관계 또한 Kline(2018)이 제시한 .90을 넘지 않았으므로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및 적합도 검증결과는 그림 3과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의 두 하위요인(부모화-불공평, 부모화-돌봄)이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에서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의 차별적인 매개효과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부모화 경험과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 간의 관계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고려하여, 연구모형의 경로를 포함한 모든 변인 간 경로를 유의한 것으로 가정한 경쟁모형을 함께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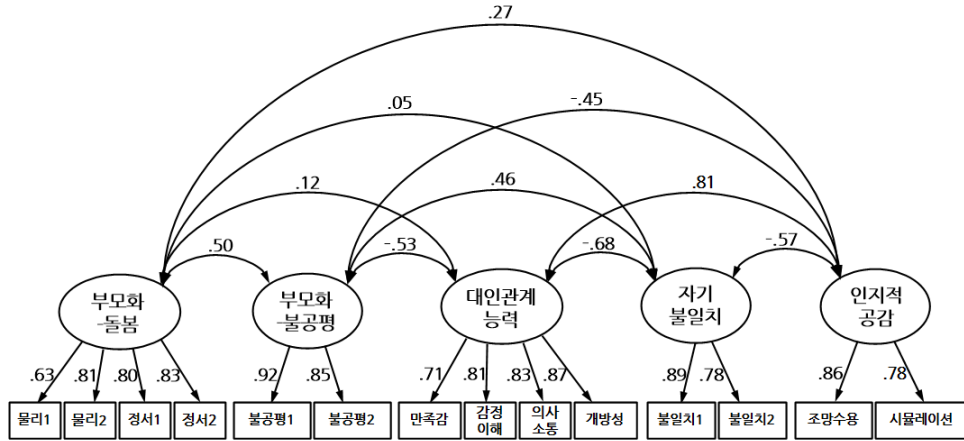


그림 3. 확인적 요인분석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도

(N=344)

	χ^2	df	CFI	TLI	SRMR
CFA 모형적합도	164.85	67	.967	.955	.046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을 비교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모형 적합도는 $\chi^2=355.133$, $df=70$, $CFI=.904$, $TLI=.876$, $SRMR=.156$, 경쟁모형의 적합도는 $\chi^2=192.856$, $df=68$, $CFI=.944$, $TLI=.958$, $SRMR=.054$ 로 나타났다. 경쟁모형이 연구모형에 비해 CFI , TLI 는 더 높고 $SRMR$ 는 더 낮아 경쟁모형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연구모형 및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는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최종모형의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이어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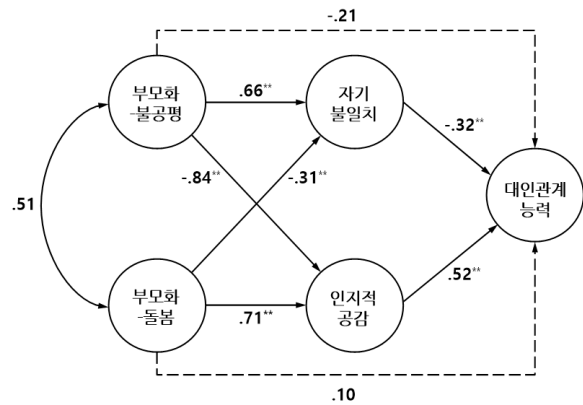


그림 4. 최종모형 결과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N=344)

	χ^2	df	CFI	TLI	SRMR
연구모형	355.133	70	.904	.876	.156
경쟁모형	192.856	68	.944	.958	.054

부모화-불공평은 자기불일치에 정적 영향(=.66, $p<.01$), 인지적 공감에 부적 영향(=-.84, $p<.01$)을 나타냈다. 또한 부모화-돌봄은 인지적 공감에 정적 영향(=.71, $p<.01$), 자기불일치에 부적 영향(=-.31, $p<.01$)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의 최종모형인 부모화-불공평 및 부모화-돌봄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생성한 후 10,000번의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화-불공평이 대인관계능력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불일치(=-.14, $p<.01$)와 인지적 공감(=-.29, $p<.01$)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화-돌봄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불일치(=.05, $p<.01$)와 인지적 공감(=.19, $p<.01$)의 매개효과 역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잠재변인 간 직·간접적인 효과 및 유의성은 표 5

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부모화 경험을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으로 구분하여, 두 하위요인이 대인관계능력에 이르는 경로에서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의 차별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의 혼재된 결과를 입체적으로 해석하여 부모화 경험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가족형태, 출생순위)에 따른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출생순위와 가족형태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화-불공평과 부모화-돌봄 모두 출생순위는 첫째일 때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가족형태의 경우 부모화-불공평은 한부모가족일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반면 부모화-돌봄은 확대가족일 때 가장 많이 경험하는

표 5.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경로

(N=344)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CI
부모화 불공평 → 자기불일치 → 대인관계능력	-.14	-.14** (.220 ~ .096)
부모화 불공평 → 인지적공감 → 대인관계능력	-.14	-.29** (-.461 ~ -.173)
부모화 돌봄 → 자기불일치 → 대인관계능력	.05	.05** (.028 ~ .089)
부모화 돌봄 → 인지적공감 → 대인관계능력	.05	.19** (.110 ~ .317)

* $p<.05$. ** $p<.01$. *** $p<.001$.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확대가족 내에서 성장한 자녀는 적응적인 부모화 경험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반면, 한부모가족 내 자녀의 경우 부적응적인 부모화 경험을 가장 많이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부모화 경험의 두 하위요인(부모화-불공평, 부모화-돌봄)은 그 외 변인들과 서로 다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부모화 경험의 양상을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입증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먼저, 부모화-불공평과 대인관계능력은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모화-돌봄과 대인관계능력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부모화-불공평과 인지적 공감이 부적 상관이 나타난 반면 부모화-돌봄과 인지적 공감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모화 경험과 공감능력을 연구한 선행연구(강선모, 2015)를 지지하는 결과로, 적응적인 부모화를 한 경우 타인의 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인지적 공감능력이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불일치의 경우 부모화-불공평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부모화-돌봄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부모화 경험 자체가 자기불일치를 높이는 요인이라기보다 하위요인 중 부적응적 부모화인 부모화-불공평을 경험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불일치 경향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부모화 경험의 두 하위요인(부모화-불공평, 부모화-돌봄)이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을 거쳐 대인관계능력으로 가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검증한 결과, 부모화-불공평 및 부모화-돌봄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의 완전매개효과가 입증되었다. 이는 부모화 경험 자체가 대인관계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양상에 따라 인지적 요인의 발달을 향상시키거나 저해하여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

침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부모화-돌봄이 매개변인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비해 부모화-불공평이 매개변인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적응적인 부모화 경험을 할 경우 대인관계능력이 향상되는 영향력에 비해, 부적응적인 부모화 경험을 했을 때 대인관계능력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현상을 살펴본다면, 부모화-돌봄에 비해 부모화-불공평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모화 경험을 단일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기존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지지되어 왔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부모화 경험의 두 하위요인이 자기불일치, 인지적 공감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적응적인 양상의 부모화를 경험한 경우 자기개념 간 불일치가 높아지고, 상대방의 생각과 느낌 등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돕는 인지적 공감능력의 발달이 저해됨에 따라 낮은 대인관계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적응적인 부모화를 경험한 자녀는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달되고, 스스로에 대한 통합적인 지각을 지니게 됨에 따라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건강한 자기개념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김지민, 현명호, 2017; 조은영, 2004)이 있는 동시에, 반대로 긍정적인 자기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결과가 함께 보고되었다(문은미, 최명선, 2008). 이러한 현상을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해

석한다면, 부모화 경험의 양상에 따라 자기(self)를 형성 및 발달시키는 데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화 경험이 과중하고 불공평하다고 느끼는가의 여부가 자기개념을 통합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이전의 연구에서는 주로 부모화 경험 유/무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상반된 결과가 함께 보고되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경험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가 일치되지 않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부모화 경험의 양상을 구분하여 살펴본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을 두 하위요인(불공평, 돌봄)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하위요인이 독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대인관계능력에 각각 부정적, 긍정적으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측면에 특정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녀가 가족 내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역할이 공평하다고 지각하는가 여부에 따라 대인관계능력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입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부모화 경험에 대한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부모화 경험의 두 하위요인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 각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여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능력에 이르는 경로 사이에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냈다. 이를 통해 부모화 경험을 한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어떤 심리적 기제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가정 내 구성원의 역할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부모들이 갖는 보편적인 양육 신념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이다. 이는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를 초래하고 이러한 양육 가치관이 보편적인 사회적 신념으로 확산됨에 따라 '헬리콥터 맘', '캥거루 맘'과 같은 신조어가 생기는 등의 역기능적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부모들이 가진 보편적인 양육 신념과 달리, 자녀에게도 가족 내에서 하나의 역할을 부여하고 그에 대한 적당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대인관계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부여된 역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더불어 상호호혜적인 돌봄이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돌봄의 하위요인 중 물리적 부모화는 대인관계능력과의 정적 상관을 나타냈지만 정서적 부모화는 대인관계능력과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부모화 경험을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접근한 몇몇의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모화-돌봄의 하위요인들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결과들이 나타난 것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화-돌봄의 두 하위요인이 각각의 독립적인 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의 각 하위요인 별 다른 접근을 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기불일치와 인지적 공감이 부모화-돌봄과 부모화-불공평과 대인관계능력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인과관계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여질 뿐, 실제로는 다양한 변인이 관여할 것이다. 더욱이 본 연구

에서 측정된 모형은 단순매개모형으로, 하나의 매개변인이 아닌 다수의 매개변인으로 경로를 설명하는 것이 더 적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과 더불어 또 다른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부모화를 두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나 한 개인이 여러 양상을 함께 경험하는 복잡성과 질적 차이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후 부모화 경험과 관련된 질적 연구의 축적과 함께, 부모화 경험의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다각도적인 해석을 제공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onflict of Interest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참고문헌

- 강선모 (2013). **부모화와 안녕감의 구조관계 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선모 (2015). 부모화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265-283.
<https://doi.org/10.15703/kjc.16.1.201502.265>
- 강준 (2013). **정서 점화 효과에 기반한 공감의 개인차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문정 (2006). 대학생의 공감수준과 대인관계문제 유형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8**, 5-30. 숙명여자대학교학생생활지도연구소.
- 공인원, 홍혜영 (2015). 대학생의 부모화 (parentification)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기불일치와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2), 21-47.
- 권석만 (1996). 자기개념의 인지적 구조와 측정도구의 개발: 서울대학생 표집의 자기개념 특성. **서울대학교 학생연구**, **31**(1), 11-38.
- 권석만 (2004). **젊은이를 위한 인간관계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동영, 박기정, 김효원 (2015). 한국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부모자녀관계.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6**(2), 120-128.
- 김영수, 신희천 (2012). 자기불일치가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3**(2), 745-760.
- 김지민, 현명호 (2017). 심리적 부모화가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11), 123-139.
<https://doi.org/10.21509/KJYS.2017.11.24.11.123>
- 김지은, 박준호 (2018). 향상가능성과 자기불일치가 부정정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11), 349-370.
<https://doi.org/10.21509/KJYS.2018.11.25.11.349>
- 문비 (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선모 (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 관한 일 연구. **경상대 논문집**, **19**(2), 195-204.
- 문은미, 최명선 (2008). 부모화 경험과 자아정체감의 관계에서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4), 1063-1085.
- 박선하, 유형근 (2018). 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 향상을 위한 해결중심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상담학연구**, **19**(2), 195-209.
<https://doi.org/10.15703/kjc.19.2.201804.195>
- 박성희 (1994). **공감, 공감적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성희 (1996). 공감의 구성요소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교육학연구**, **34**, 143-166.
- 박영호 (2006). **한국적 부모-자녀관계가 대인관계 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자유친성정, 애착, 우리 의식, 자아분화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수균 (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석미정, 박승민 (2019). 부모화된(parentified) 20대 미혼여성의 삶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1**(4), 1023-1051.
<https://doi.org/10.23844/kjcp.2019.11.31.4.1023>
- 신말숙, 심혜원 (2017). 부모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6**(1), 61-80.
<https://doi.org/10.22257/kjp.2017.03.36.1.061>
- 이경화, 장유진 (2019).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과 신체화의 관계: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양가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10), 181-209.
<https://doi.org/10.21509/KJYS.2019.10.26.10.181>
- 정소라, 장석진 (2017).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8), 1-25.
<https://doi.org/10.21509/KJYS.2017.08.24.8.1>
- 조수아, 장진이 (2019). 청소년이 지각한 부와 모의 수용적 양육태도가 분노조절에 미치는 영향: 자기위로능력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5), 303-331.
<https://doi.org/10.21509/KJYS.2019.05.26.5.303>
- 조은영 (2004).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Boszormenyi-Nagy, I. K. & Krasner, B. R. (2013). *Between give and take: A clinical guide to contextual therapy*. Routledge.
<https://doi.org/10.2307/583562>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II: Separation (Vol. 2)*. New York: Basic Books.
<https://doi.org/10.1037/e528332004-001>
- Burton, L. (2007). Childhood adultification in economically disadvantaged families: A conceptual model. *Family Relations*, **56**(4), 329-345.
<https://doi.org/10.1111/j.1741-3729.2007.00463.x>

- Byng 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375-388.
<https://doi.org/10.1111/j.1545-5300.2002.41307.x>
- Castro, D. M., Jones, R. A., & Mirsalimi, H. (2004). Parentification and the impostor phenomen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2*(3), 205-216.
<https://doi.org/10.1080/01926180490425676>
- Chow, C. M., Ruhi, H., & Buhrmester, D. (2013). The mediating role of interpersonal competence between adolescents' empathy and friendship quality: Dyadic approach. *Journal of Adolescence, 36*(1), 191-200.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2.10.004>
- Davis, M. H., & Oathout, H. A. (1987). Maintenance of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Empathy and relational compet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2), 397-410.
<https://doi.org/10.1037/0022-3514.53.2.397>
- Gladstone, B. M., Boydell, K. M., Seeman, M. V., & McKeever, P. D. (2011). Children's experiences of parental mental illness: a literature review. *Early intervention in psychiatry, 5*(4), 271-289.
<https://doi.org/10.1111/j.1751-7893.2011.00287.x>
- Hair, J., Anderson, R., Tatham, R. and Black, W.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London: Prentice Hall.
<https://doi.org/10.2307/2348783>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https://doi.org/10.1037/0033-295X.94.3.319>
-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1986).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15.
<https://doi.org/10.1037/0022-3514.51.1.5>
- Hooper, L. M. (2007). The application of attachment theory and family systems theory to the phenomena of parentification. *The Family Journal, 15*(3), 217-223.
<https://doi.org/10.1177/1066480707301290>
- Hooper, L. M., Doehler, K., Jankowski, P. J., & Tomek, S. E. (2012). Patterns of self-reported alcohol use, depressive symptoms, and body mass index in a family sample: The buffering effects of parentification. *The Family Journal, 20*(2), 164-178.
<https://doi.org/10.1177/1066480711435320>
- Hooper, L. M., Marotta, S. A., & Lanthier, R. P. (2008). Predictors of growth and distress following childhood

- parentification: A retrospective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7(5), 693-705.
<https://doi.org/10.1007/s10826-007-9184-8>
- Jurkovic, G. J., Kuperminc, G. P., Sarac, T., & Weisshaar, D. (2005). Role of filial responsibility in the post-war adjustment of Bosnian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motional Abuse*, 5, 219-235.
https://doi.org/10.1300/j135v05n04_03
- Jurkovic, G. J., Morrell, R., & Thirkield, A. (1999). Assessing childhood parentification: Guidelines for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London: Sage.
<https://doi.org/10.4135/9781452220604.n5>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245-257.
<https://doi.org/10.1023/a:1010349925974>
- Kline, R. B. (2018). Response to leslie hayduk's review of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ARCHIVES]*, 45(3-4), 188-95.
<https://doi.org/10.25336/csp29418>
- Kuperminc, G. P., Jurkovic, G. J., & Casey, S. (2009). Relation of filial responsibility to the personal and social adjustment of Latino adolescents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3(1), 14.
<https://doi.org/10.1037/a0014064>
- Kuperminc, G. P., Wilkins, N. J., Jurkovic, G. J., & Perilla, J. L. (2013). Filial responsibility, perceived fairnes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Latino youth from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7(2), 173-182.
<https://doi.org/10.1037/a0031880>
- McCann, C. D., & Higgins, E. T. (2015). Motivation and affect in interpersonal relations: The role of personal orientations and discrepancies. *Communication, Social Cognition, and Affect*,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NJ, 53-79.
<https://doi.org/10.4324/9781315743974-12>
- McMahon, T. J., & Luthar, S. S. (2007).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caretaking burden among children living in urba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2), 267-281.
<https://doi.org/10.1037/0002-9432.77.2.267>
- Parke, R. D., Ornstein, P. A., Rieser, J. J., & Zahn-Waxler, C. E. (2004). 발달심리학 거장들의 핵심이론 연구 [A Century of developmental psychology]. (이민희 역). 서울: 학지사(원전은 1994에 출판).
- Reniers, R. L., Corcoran, R., Drake, R., Shryane, N. M., & Völlm, B. A. (2011).

The QCAE: A questionnaire of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3(1), 84-95.

<https://doi.org/10.1080/00223891.2010.528484>

Rogers, C. R. (2009). **진정한 사람 되기: 칼 로저스 상담의 원리와 실제** [On Becoming A Person. Boston]. (주은선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61에 출판).

Schlein, S., Guerney, B., & Stover, L. (1971).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scal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University Park.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https://doi.org/10.4324/9781315014029>

Tompkins, T. L. (2007). Parentification and maternal HIV infection: Beneficial role or pathological burde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108-118.

<https://doi.org/10.1007/s10826-006-9072-7>

**Effects of Parentification on College Students'
Interpersonal Ability:
The Differential Mediation Effects of
Self-Discrepancy and Cognitive Empathy**

So-Jin Ku¹

Eun-Young Park²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Master's degree¹

Department of Psychology, Daegu Catholic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²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differential effect of the parentification sub-factor (injustice, caretaking) on college student interpersonal ability (IA). Self-discrepancy (SD) and cognitive empathy (CE) were utilized as parameters to valid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Regard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both types of parentification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family type structure and birth order, respectively. Parentification-injusti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IA and CE but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D. In contrast to injustice, Parentification-caretaking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IA and CE but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D.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ub-factor of parentification (injustice, caretaking) had a differential effect on IA by mediating SD and 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 parentification, interpersonal ability, self-discrepancy, cognitive empathy